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9 . 7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9 / 7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보왕삼매론 (2)
산다는 것 그림다는 것	10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
길상사 시간여행	15	성북동 길상사 터의 역사 ④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20	한여름 밤의 잔치 마당
따뜻한 이야기	24	엄마에게 온 편지
아름다운 마무리	26	7월 결연 대상자 - 김영희(가명)
인권 아단법석	28	장애인권 (2)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32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모단에썬이	35	기억에 남은 몽금포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8	
길상사 소식	49	



• 이가은 「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7월 1일 발행 / 통권 293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보왕삼매론(2)

글·법 정(法 頂)

다섯째,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많은 세월을 두고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모든 일이 너무 쉽게 되면 안 좋습니다. 쉽게 이뤄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실 공사라는 게 뭘니까?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무 쉽게 이뤄졌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들, 이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극복 못 합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구요. 이게 다 고해입니다. 사바세계, 참고 견

더야 할 세계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때그때 면역을 갖춰야 합니다.

일이 쉽게 되길 원하지 마세요. 모든 게 차례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도 사계절의 질서가 따라야 움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잖습니까. 너무 쉽게 풀리길 원하지 마세요.

많은 세월을 두고 일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두고 기량이 커지고 그런 도량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 그릇이 이런 도량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됐는데 만약 거기에 무슨 일이 뜻대로 된다면 교만해지고 안이

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한다면 의리를 상하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순교로써 사귀를 깊게 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란 뭘니까.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내 자신이지요. 친구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또 다른 내 분신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믿음과 의리, 신의로써 인간관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히 친구지간은 그래야 합니다.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친구지간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그런 믿음과 의리, 하나 결들인다면 예절도 들어가야 합니다. 친할수록 예절이 갖춰져야 합니다. 예절은 뭘니까? 사람의 도리입니다. 좋은 인간관계에

는 반드시 믿음과 신의, 예절로 이뤄져야 합니다.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친구지간에 친구를 수단으로써 자기 출세하는 데 발판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결로써 사귀를 깊게 하라,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만 남습니다. 내가 잘산 인생이라면 좋은 관계가 남고 내가 잘못 산 인생이라면 언짢은 관계만 잔뜩 남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거듭거듭 인간 형성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친구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일깨워 주며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깨우쳐주니까.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눠 갖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한다면 의리

를 상하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 하시기를 순결로써 사귀를 깊게 하라 하셨느니라.

일곱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뜻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하는데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라는 게 상당히 가엾가웃해지는데 한 가정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 아무 탈이 없는, 정말 서로 화합하고 화목한 가정이 이 세상에 더러 있겠지요. 집안에 모두 효자만 있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집안 재미없습니다. 인생을 모른다구요. 불효가 있기 때문에 효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

다. 불효자가 있기 때문에 효의 값을 알게 됩니다.

돌담을 쌓는데 똑같은 돌은 필요가 없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모난 돌, 납작한 돌 다 필요하잖습니까. 우리 조직사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각기 독특한 개성이 틀린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이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면 됩니다. 조화가 깨지면 그건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자기 개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큰놈은 이런데 작은놈은 이렇더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다 한몫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어디에 내놓든 사람으로서 한몫을 하면 됩니다. 모두가 우등생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등생 아닌 사람이 있으니 우등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공덕을 베풀 때에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게 되면 불순한 생각이 움튼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덕 베풀 것을 현 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공덕이란 공적과 덕행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선행입니다. 선행을 베풀 때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결과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보를 바라면 장삿속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리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요즘 수능시험 때문에 다급해진 엄마들 많지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격이 됐든 불합격이 됐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오든 덜 나오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가 안 할 수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할 뿐이지 따로 무슨 결과를 갖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

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간절한 메아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우주 질서입니다.

공덕을 베풀 때에는 과보를 바라지 마십시오. 과보를 바라게 되면 불순한 생각이 움튼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덕 베풀 것을 현 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아홉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돼라' 하셨느니라.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결코 크고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저 입만 벌리면 다들 경제 타령하잖아요. 하루에도 기업체들이 몇 개씩 도산되고... 그런데 인간 생활은 경제만이 전

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그런 일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타고 분에 넘치게 과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오늘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일찍이 우리 그릇은 만들어 놓지 않고 자꾸 욕심껏 뿔 담기만 하려고 했던 과보입니다.

오늘의 불황은 우리들 마음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릇을 키우려면 눈앞의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덕을 길러야 합니다. 개체를 넘어서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소욕지족(小欲知足), 작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잘 사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늘 갈증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갖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넉넉해집니다.

열째,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변명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사필귀정이란 뜻인데 모든 잘잘못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검고 흰 것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진실은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마치 꽃향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하게 되면 거기서 원망하는 마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참고 견디면서 안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트이는 것이요, 트임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많은 장애 가운데서 바른 깨

달음을 이루셨다.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먼저 역경에서 건디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장애가 부딪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마침내는 법왕의 큰 보배까지도 잃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마음에 깊이 새겨 생활의 지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신이 지닌 생명의 씨앗을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꽃이 있어요. 다 꽃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꽃

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움트기 위해서는 흙 속에 묻혀서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거기에 감추어진 삶의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바세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극락도 지옥도 아닌 사바세계, 참고 견딜 만한 세상, 여기에 삶의 묘미가 있습니다.

가끔 외우시면서 생활의 지혜로 삼기 바랍니다. (끝)

- 1997년 11월 4일 길상사 창건 기원 법문

법정 스님 영상 강연 & 법문

법정 스님 입적 9주기 해를 맞아 법정 스님의 영상 강연과 다시보는 법문으로 일요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정 : 3월 ~ 11월, 4째 일요일
(4째 일요일외에는 일요 가족법회가 병행됩니다.)
- 시간 : 오전 11시(사시에블 후)
- 장소 : 설법전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

글 • 최종태

커다란 눈에 까만 눈동자로 가득 찬 천사의 그림이 있다. 이콘[聖畫像(성화상)]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눈이 그렇게 큰 것은 하느님을 본 이가 되어 그렇다는 것이다. 여러 날을 성화 강의를 했는데 그 한마디, 하느님을 본 이가 되어 눈이 그렇게 크다는 대목에서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명쾌하다 할까, 그야말로 푹 떨어진 표현이었다. 나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눈과 입의 모양에 대해 늘 마음이 쓰이는 것이다.

초승달같이 그리고 싶을 때도 있고 어찌다 보면 슬픈 눈이 되기도 한다. 나는 어떤 눈을 그릴까, 어떤 입을 만들까 늘 고민스럽다. 예를 들면 ‘이 여

인이 왜 웃고 있어야 하나?’ 하는 의미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예를 들자면 부처님 얼굴이 파안대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다. 불교 그림이나 그리스도교 그림에서 그러하다. 형태에 내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작과 표정이 그리고자 하는 내용을 여실하게 표현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뜻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그림들을 보면 인상파 시절부터 그림에서 내용과 의미를 제거하는 일에 큰 노력을 해왔다. 그리하여 색채만 있고 형상이 없는 캔버스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까지 간 듯하더니 요즘은 사

정이 달라지는 것 같다. 물결이 굽이를 만들고 반전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시절에 천사의 눈이 큰 것은 하느님을 본 이가 되어 그렇다. 한 그림 설명이 나한테는 큰 감명으로 들린 것이다. 그림이란 것이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하는 혼돈이 생긴다.

완당의 세한도가 중국에 건너갔을 때 의미의 있음과 없음이 참으로 절묘하게 표현되었다고 격찬을 받았다. 그림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뜻에 형상이 지배당해서도 안 되고 뜻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다.

어떤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한다. “뜻이 성했을 때 예술은 쇠퇴하고, 또한 뜻이 약화되었을 때 예술은 쇠퇴한다.”

박수근의 그림이 사랑받는 것이 그런 ‘치우침이 없음’과 무관하지 않고 생각된다.

이집트의 조각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 지극히 추상화된 형태이면서도 그냥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로마 시대 조각들은 인체를 설명하는 데 너무 열심히 한 탓인지 형태의 생명력에 있어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조토의 경건성과 바로크 화가들의 자유분방함은 극단의 대조(對照)다. 우리는 거기서 득(得)과 실(失)을 알아볼 수 있다.

김종영의 조각과 장욱진의 그림은 매우 대조적이다. 그런데 나는 그 양쪽을 다 좋아한다. 어떤 하나의 이념으로 단정되지 않는 데 그림의 오묘함이 있다. 세상이 한 가지 종류의 나무로만 가득 찬다면 하는 상상을 한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

상이 한 가지 꽃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해 본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의 원리에서 나왔지만 세상에는 백화가 난발하고 있다.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간다. 만일 강물이 반듯하게 흘러간다면... 물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연은 본래 그렇게 생성된 것이다. 백화가 난발하고 물은 굽이굽이 흘러간다.

뜻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이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뜻이란 무엇이며 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자고로 동서 간에 성현들이 말 씀하셨다. 진선미는 하나다. 갈라놓을 수 없는 성질이라고 하셨다. 한마디로 진리라고 말한다. 참된 이치는 하나로 돌아간다. 원래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근래의 문명은 사방으로 갈라놓는 일에 열심이었다. 사회는 투철한 전문가를 요구했다. 그

것은 지금 인간 상실의 큰 오류를 범하려 한다. 모두가 그것을 염려한다.

〈실낙원〉이라는 마사초의 유명한 그림이 있다. 나는 그 그림 앞에서 복낙원(復樂園)을 생각했다. 사람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사실이다. 다시 낙원으로의 귀향이 절실한 때다. 종교와 예술과 학문이 하나인 근원을 향해 총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에의 추구다. 우리 모두가 흩어져 제각기 어떤 길을 찾고 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한다.

그림은 왜 그리며, 누구를 위해 그리는 것인가. 어떻게 그럴 것인가에 앞서 나는 왜 예술을 해야 하는가를 되묻는다. 결말날 수 없는 일이란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오늘도 되묻는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아름다움을 진실로 본 사람은 그림을 안 그릴 것이다. 유사 이래 진실로 아름다움을 본 이는 한 사람도 없다. 예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일이 영원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이 절규와도 같은 한 마디가 오늘도 내 가슴을 울린다. 사람은 완전한 그림을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적 숙명이 아닐까 싶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는가? 다만 성숙한 표현을 바랄 뿐이다. 진정한 예술가일수록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 나의 스승 한 분은 팔십을

훨씬 넘기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지금 백 리 길 가운데 구십 리 길을 왔는데 나머지 십 리가 온 길보다 더 멀구나!”

가신 지 몇십 년이 되었지만 문득 생각날 때가 있다.

뜻과 쓸모와 아름다움을 한 몸에 가질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다. 그중 하나의 문제만도 성취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뜻과 쓸모와 아름다움은 한 나무의 여러 뿌리다. 뜻의 미술, 쓸모의 미술, 순수미를 위한 미술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예술일진데 분리되어서는 온전하지 못할 것 같다.

푸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어도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라치면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낀다.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들은 해 진 뒤에도 하얗게 빛난다. 산이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형상을 보는 것 같다. 교(巧)가 줄(拙)을 넘어설 수 없다 한 소동파의 말이 자주자주 생각난다. 태박(太朴)이란 말을 도덕경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 분화와 종합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미가 의미의 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도 허전한 일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눈이 커다란 것은 신의 모습을 본이가 되어 그렇다는 말이 산울림처럼 자꾸만 메아리친다.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은 하나의 몸체라는 것이다. 참됨과 선함의 표정이 미(美)라는 형태가 아닐까.

최종태 • 1932년 대전에서 4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 2학년 때부터 이동훈 선생에게 그림지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들어가 김종영 선생과 장욱진 선생을 만났다. 1958년 조소과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과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그림과 조각 못지않게 글쓰기를 좋아하여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등 7권의 수상집과 '교회조각' 등 8권의 화집을 냈다. 여러 잡지에 글을 쓰고 여러 성당에 성상을 만들어 앉혔으며, 호암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가나아트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가톨릭미술상·서울시문화상·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김종영미술관장·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이다.

성북동 길상사 터의 역사 ④

글 • 홍정근

삼천리(1929년부터 삼천리사에서 김동환이 취미와 시사 중심의 대중지 성격으로 발행한 교양잡지) 1935년 6월호에 길상사 터의 옛 주인 백인기(白寅基, 1882~1942년)의 별장에 관해 소개되어 있음을 지난 본지 5월호에 연재한 바 있다. 백인기는 전라북도 전주 지역의 유명한 부호인 백남신의 아들로 무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1903년 대한제국의 육군 참위로 임관했으나,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후에는 금융인으로 변신, 조흥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을 설립해 이사를 지내고, 한성농공은행 감사와 조선식산은행 상담역으로 근무했다. 1927년부터 3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기

도 했으며, 식민지 수탈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감사를 지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백인기 이후의 길상사 터의 기록은 대한민국 최초의 법학박사이며, 전 법무부 장관과 문교부 장관을 지낸故 황산덕(1917~1989년) 박사가 1987년 발간된 회고록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황산덕의 부모(황경환, 배현도)는 평안남도에서 1945년 3월 서울로 옮기는데, 이때 백인기 소유의 성북동 부지는 백인기와 그의 장남마저 사망하면서, 백인기의 손자에게 별장을 매입하여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1946년 계약 무효 소송이 제

기되어 패소하고 2년 후 을지로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회고록 중 일부를 소개한다.

「우리 조상이 평양에 정착하기 시작한 후부터 약 200여 년 정도가 지나서 우리 집은 이제 서울로 그 본거지를 옮긴 것이다. 성북동에 있는 백인기 씨 별장(전북 이리의 갑부)은 대지가 20,000평이 넘는 궁궐 같은 집이었는데 우리는 해방 직전인 1945년 3월 이 집을 구입하여 수리해서 이사하기 시작하였다. 거리가 깊은 숲으로 둘러싸인 산 아래 넓은 대지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세 채로 나누어진 기와 건물에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이 어우러진 호화 주택이었다.

나중에 이 집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1980년대 말까지는 요정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길상사라는 절이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부부와 애들이 같이 사용하던 별채는 절경 내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

당시는 태평양 전쟁 말기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권장되었으나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전면적인 이사는 불가능하였고 우선 급한 대로 한 트럭분의 가재도구만 옮겨 놓은 채 곧이어 8.15해방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대구에 있던 나의 식구들도 서울로 올라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대구에서 철도편으로 부친 이삿짐을 해방 직후의 혼란 틈에 몽땅 잊어버렸으므로 결국 빈 털털이가 된 채로 성북동의 대저택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 종략 -

그러는 동안에 성북동 집에 말썽이 생겼다. 백인기 씨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의 손자가 성북동 집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판 것인데 당시 그 손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백씨 집안의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 매매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 후 그 손자가 전라남도 시골 어딘가에 있는

그의 고모의 동이가 빠졌다고 계약 무효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대법원장 김용무(6·25 때 피랍)는 원고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고

결국 2년간의 재판 끝에 우리는 패소하여 성북동 집을 내놓게 되었다.

- 제 1장 집안 소개 '1945년 평양을 떠나 서울 성북동으로 이주' 중에서

「성북동에서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아래채를 차지하였고 내 식구들은 가운데 사랑을 썼다. 앞에 있는 서재에는 부원군 윤덕영 씨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1만 권 가량의 하사본을 돈을 주고 사다가 진열해 놓았는데 이곳은 응접실로도 사용하였다. 가운데 사랑에서



황산덕 회고록에 기록된 길상사 옛 모습

물길을 따라 150m가량 올라가면 수각이 있었는데 여름에는 여기에서 주연을 베풀기도 하였다.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일본식으로 지은 위채가 있는데 이곳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이 성북동 집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1945년 8월 말부터였으며 이곳에서의 2년 동안은 우리 집안의 격심한 파란을 겪는 시기가 된다.

- 제 6장 해방 후 사회생활 '성북동에서의 생활' 중에서

황산덕 박사는 법정 스님과 인연이 매우 깊었다. 1959년 7월 12일 법정 스님의 편지글을 보면 “서울 법대에 계신 황산덕 교수께서 지난해 여름

부터 나에게 사상계지를 보내주고 있다. 거기에서 유달영 선생님과 함께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감명 깊게 읽을 수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

황산덕 박사는 1964년부터 대한불교(불교신문 전신) 주필을 지냈고, 1975년 대한불교진흥원 창립부터 타계할 때까지 이사를 지냈으며, 1980년부터 9년 동안은 이사장을 맡아 재단의 초석을 다진 분이다. 갓 출가한 법정 스님에게 사상계지를 보내주며, 장준하 선생과 함석헌 선생과 인연을

맺게 한 분이 황산덕 박사인 것이다.

그러나 유신 시절인 1974년 9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1975년 4월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사형 집행은 그의 인생에서 ‘옥(玉)의 티’로 남게 된다.

이후 백인기 소유의 성북동 부지는 이봉재(李鳳載)의 이름으로 청암장(淸岩莊)이란 대중요리점으로 운영된다. 1948년 3월 31일 자 동아일보에 “국련(國聯) 조선위원회 전국 환영 준비 위원회는 금삼십일 오후 5시 30분 시내 성북동 청암장에서 인도 대표 ‘상씨 환영회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국련은 UN을 의미한다.)

그리고 1949년 4월 17일 자 경향신문 하단에는 “청암장(淸岩莊) 주 이봉재(主 李鳳載) 백인기 별장적(白寅基 別莊跡)”이라는 하단 박스 광고가 실려 있기도 하다.



청암장 1949년 4월 17일자 경향신문 광고

서울신문 2010년 8월 31일 자에 ‘길상사는 사회주의 이론가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박헌영(1900~1955)의 비자금으로 지었다는 원경 스님의 인터뷰가 실린다. 원경 스님은 박헌영의 남한 내 유일한 혈육이며, 2015년 조계종 최고 법계(法階)인 대종사(大宗師)를 품서한 원로위원으로 법정 스님 입적 후 세상에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다.

원경 스님은 몇 차례 박헌영과 대원각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특히 《박헌영 트라우마》(2013년, 손석춘 지음)라는 책에서는 “조봉희는 대원각의 주인이었다. 조봉희 여사가 권번의 수양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라고 주장한다.

원경 스님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조명해보았을 때, 김영한이 대원각 터를 취득하기 전 소유주는 ‘조봉희’라는 인물이고, 조봉희는 박헌영의 동복이부(同腹異父) 누이이다. 조봉희와 청암장 광고에 나오는 이봉재와의

관계는 파악하기 어렵고, 어떤 경로로 백인기에서 조봉희에게 이전되었지는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경 스님의 주장에 따르면 조봉희의 아들은 김제술, 딸은 김소산이고, 김제술은 박헌영의 최측근 참모 역할을 했으며, 박헌영이 월북하고 남로당 조직이 와해된 후에는 ‘한산’이라는 승려가 되어 박헌영의 아들 박병삼(원경 스님)을 돌보다가 1968년 사라진다.

한편 김소산은 어머니의 피를 따라 기생으로 활동하면서 법조계·재계 인사들과 접촉하다 1949년 ‘오제도 검사 암살 음모 사건’으로 특별수사본부에 체포된다. 김소산이 투옥되면서 함께 있던 김영한에게 집의 관리를 맡기는데, 이듬해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김소산은 1951년 1·4후퇴 직전 처형된다. 이후 청암장 부지는 한동안 주인 없는 땅이 된다. (다음호 계속)

한여름 밤의 잔치 마당

글 • 권오분

여름날 밤이면 우리 집 마당에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다. 집이 강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은 누구라도 우리 집 마당을 지나야 강에 갈 수가 있었다. 겨울에는 동네 아이들이 퐁퐁 언 강에서 썰매를 타려고 우리 집 마당을 지나갔고, 여름날에는 장마가 저서 물이 범람하면 나무가 위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배를 타기 위해 우리 집 마당을 지나가야 했다. 그들은 우리 집 마당에 머무는 일이 없이 대부분 그냥 지나가기만 했다. 그러나 여름날 저녁은 달랐다.

한여름, 진종일 밭일과 논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해 질 무렵이면

우리 집 마당을 지나 강물에 미역을 감으러 가곤 했다. 초저녁에 남정네들이 먼저 씻고 집으로 가고 나면, 완전히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아낙네들이 미역을 감으러 갔다. 우리는 낮에 학교에서 오자마자 가방을 던져 놓고는 해가 지도록 물장구를 치고 놀았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밤에 미역 감으러 가는 아줌마들을 또 따라갔었다. 든든한 보호자들이 있으니 느긋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그 마음은 종교에서 말하는 평안 그 자체였다.

별이 총총한 밤에 엄마 옆에서 자맥질을 하고 놀던 때의 편안하고 행복했던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

를 위로해 주는 커다란 힘이다. 머리 위로 쏟아지던 별을 보며 놀던 그 아름다운 밤. 별뿔별을 보며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텀벙대는 느낌은 낮과는 사뭇 다르다. 그 여름밤 미역 감던 느낌과 대낮에 해엄을 쳐서 강을 건너던 그 엄청난 느낌의 차이... 아마 그 느낌만으로도 한 권의 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텀벙대다가 집에 와 보면 나보다 먼저 강에서 나온 동네 아줌마들이 모두 우리 집 마당에 앉아서 여름밤의 수다를 즐기고 있었다. 그 수다는 우리 어머니께서 만든 음식과 함께 밤이 이슬하도록 끊이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는 풀을 베어다 모깃불을 만들어 놓고 아낙들에게 자릴 비켜주고자 조용히 동네 사랑방으로 가셨다. 남자가 없고 울타리도 없는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동네 아낙들의 낙원이었다. 피식 피식 소리를 내며 풀이 타들어 갈 때 나오는

매캐한 연기는 모기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준 방패였다. 매캐한 풀연기 냄새와 아낙들의 재잘거림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당이 갑자기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어머니께서 여름밤에 만들었던 음식은 다양했다. 수수쌀 빵은 것과 밀가루를 섞어서 울타리 콩을 넣어 끓인 수수범벅, 낮에 빵아 온 밀가루에 부추와 애호박, 풋고추를 썰어 넣고 부친 밀전병. 텀밭에서 꺾어 온 옥수수 삶은 것. 쌀이 귀한 시절이어서 밀가루 반죽에 썩을 넣어서 팬케이크처럼 둥글게 만들어 보자기로 깔고 찢 썩 개떡, 갓 캐어온 감자를 찌고 그 위에 밀가루에 소금과 강낭콩을 섞어서 반죽한 것을 얹어서 찢 밀범벅. 감자가 분이 나서 딱싹신 했던 납작의 구수한 맛. 방앗간에서 보리쌀을 찧어 오는 날에 보리의 속겨를 받아 두었다가 사카린과 소다를 넣어서 찢 보리빵. 그

보리빵의 알칼한 소다 향은 아무리 많은 음식이 개발되어도 잊을 수 없는 맛과 향이다. 지금은 보리 빵아를 찢는 곳을 알 수 없기에 보리빵은 추억의 음식이 되어버렸다. 어머니는 이처럼 여름밤 날마다 다양한 음식으로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아낙들을 유혹했다.

고향에 가면 당시 새댁이었던 아줌마들이 어머니의 별식이 그림다고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인다. 그 시기에 나는 어려서 몰랐지만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하던 그녀들의 애환을 위로해 주셨고, 잠시 멍석에 앉아 별난 음식을 먹으며 친정과 같은 편안함으로 그녀들의 가슴과 몸에 맺혔던 긴장을 풀어주셨던 것이다. 엄마는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자 수수범벅에 물을 붓고 죽처럼 만들어 그네들을 먹였다. 그들이 먹은 정과 사랑은 세월이 가고 먹을 거리가 많아진 지금도 그 시절을 추

억하게 하는 향수였던 것이다.

저녁을 먹고 나서 물에서 놀다가 시원해진 몸에 한 그릇의 뜨거운 수수호박죽과 애호박 칼국수가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맛이 있었을까... 호박과 콩을 넣어 끓인 수수죽을 우리 동네에서는 '수수개기'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웰빙 건강식이다. 삶은 호박에 밀가루만 풀어 놓고 만든 호박죽은 빛깔만 호박죽이지 건강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달기만 하기 때문이다. 수수가루와 강낭콩과 같이 조금만 우리 자연이 선물한 재료들을 넣어준다면 좀더 구수하고 몸에 좋은 죽이 될 텐데, 모두 똑같은 종류의 음식만을 준비하는 것이 안타깝다.

가난하면서도 밀과 보리를 거두고 나서 잠시라도 풍족하게 마을의 배고픈 아낙들의 마음을 흡족하고 편안하게 해주셨던 어머니. 부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나눔을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던 어머니께서 실천하셨던 것이다. 자연이 차려준 밥상에 정과 마음을 더해서 말이다.

“엄마!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만날 공짜로 줘?”

“부자? 부자는 일 부자일 뿐이지. 부자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달프단다.”

어린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나는 부자들의 고달픔을 깨달았고 나누어 먹는 기쁨이 내가 먹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다 가진 것처럼 베풀라는 진리를 난 그렇게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추억으로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의 엄마들이 내 아이들이 자라서 추억할 수 있는 음식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삶이 힘겹다고 느낄 때, 엄마가 만들어 준 추억을 먹고 생의 에너지가 충만했던 당시를 떠올려 순수하고 행복했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말이다.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쓰셨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공저) 등이 있다.

엄마에게 온 편지



에게 사랑한다고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께. 어머니의 날을 축하하며 사랑해요. 엄마! 엘라가.’

스코틀랜드 이스트에어서 킬마녹에 사는 꼬마 숙녀 엘라 레논은 3살 때,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4살이 된 해의 ‘어머니날’에는 사랑한다고 말을 해드릴 엄마가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라는 하늘에 계신 엄마

편지에는 가족들의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천국에 계신 엄마’라고 수신인을 쓰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엄마에게 잘 도착하기를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라의 기도가 전해졌는지 천국에 있는 엄마에게 답장이 온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 엘라에게. 아주 특별한 어머니날 카드 잘 받아보았다.

너는 내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야.

영리하고 특별한 소녀로 자라고 있는 네가 엄마는 무척 자랑스럽구나.

비록 엄마는 천국에 있지만 매일 널 지켜보고 있단다.

사랑과 포옹과 키스를 담아 보낸다. 천국 구름 속 천사 게이트 1번지에서 엄마가.’

편지를 받은 엘라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천국에서 보내온 이 편지는 엘라가 보낸 편지를 우연히 발견한 우편 회사의 한 직원이, 엄마를 대신해 엘라의 행복을 위해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우편 회사 직원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보낸 이 편지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선한 사람의 짧은 손편지 한 장이 엄마를 잃고 상심하던 소녀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편지 하나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과 감동을 뿌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세상을 따뜻하게 덮을 수도 있습니다.

7월 결연 대상자 - 김영희(가명)

기도하는 마음

김영희(가명)님은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이면 마음과 같지 않은 몸을 추슬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김영희님은 어떤 바람이 있어서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며 기도하는 걸까요?

김영희님 부부는 한때 십여 개의 백화점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종종 불우이웃을 위해 수백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선뜻 내놓는 정이 많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 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을 잃었으며 신장이 약화되어 투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큰 수술, 반복되는 입원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마지막 자산이었던 집까지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남편의 긴병으로 지인들도 모두 떠났고 홀로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혼자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모든 예식을 간소화했지만 부족한 장례비는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약 18년간 남편을 돌보며 김영희님의 몸도 망가져 갔습니다. 슬하에 자식이나 도움을 받을 친인척도 없었기에 거동이 어려운 남편을 돌보는 것은 오로지 김영희님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을 돌본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김영희님 역시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각해져서 병원을 찾은 결과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

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비용 문제로 수술조차 할 수 없어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며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김영희님의 나이는 30대 후반, 아직 젊은 나이의 김영희님에게 “책임질 자식도 없는데 병든 남편이 뭐라고 그 고생을 하나”며 남편을 두고 멀리 떠나라고 하는 지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을 피해 도망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김영희님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면 가지런히 앉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며 열심히 기도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감내했습니다.

계속되는 기도

남편의 장례 후 김영희님께 남은 건 아픈 몸과 빚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수급권자로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임대료 6만 원, 공과금 10만 원 그리고 남편의 병원비와 장례식 때 얻은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갚는 돈 30만 원을 내고 나면 실질적인 생계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영희님은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영화에 대한 그리움, 타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매일 새벽 기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님이 길을 잃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월 4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 (2)

글 • 고희희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슬로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이 슬로건대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친구, 가족, 동료... 등 관계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하고, 여가와 취미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남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

양한 사람들에 맞추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장애 뇌병변장애

- 내부기관 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애 및 요루 뇌전증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선천적)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 지적장애(후천적) : 정신분열 반복성 우울장애 등

대한민국 인구를 5100만 명으로 볼 때 장애인 비율은 5%, 255만 명입니다. 그중 선천적 장애가 10%, 후천적 장애가 90%입니다. 남녀 비율은 1.5 : 1.0입니다.

대부분의 사회 시설과 제도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이 필요한 인권에 추가하여 ‘접근권’이 필요합니다. 접근권은 물리적 접근권, 정보 접근권, 과학기술 접근권, 의사소통 접근권, 경제생활과 사회생활 접근권 (From Exclusion to Equality, UN, 2007)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수학능력시험을 본다면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장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점자 시험지, 답안 체크가 원활한 편의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2년 애드 로버츠(Ad Roberts)는 버클리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애드는 코웰 병원에 병실을 기숙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폐 근육 마비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전신 마비 중증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의 치료와 숙식이 가능한 병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학생지원프로그램으로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애드는 중증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버클리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되었으며 대학원까지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지속적으로 장애 학생 차별금지 운동과 장애인 인권운동을 전개하였고, 졸업 후 장애인 자립 생활운동으로 사회를 변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격리와 보호를 거부하고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대중의 편견을 없애는 계몽운동을 하였고, 휠체어 통행 경사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난간 설치 등의 운동을 처음 벌였습니다. 후에 버클리 대학에는 애드 로버츠 캠퍼스가 설립되어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장애인 재활 부서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템플 그랜딘은 미국의 동물학박사이며 교수이며 자폐인입니다. 2살 때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는 ‘이 아이는 평생 장애인시설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장애시설에 보내지 않고 비장애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사 칼록의 도움으로 동물학을 전공하여 박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가축 시설의 3분의 1이 그녀가 설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어느 자폐인 이야기를 저술하였으며 포옹 기계를 발명하였습니다.’

2018년 76세로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21

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뒤틀린 몸으로 이론 물리학의 업적은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상묵 교수도 2006년 자동차 사고로 휠체어 장애인이 되었지만 서울대 해양과학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독립영화 ‘어른이 되면’은 장혜영 감독이 1살 어린 동생 혜정씨와 둘이 함께 살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장혜정은 발달 장애인으로 13년간 타의에 의하여 외딴 산꼭대기의 건물에 격리되어 수용되어 살았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은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자립프로그램이 작동해야 합니다. 장혜영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되어야 할까?’ 질문합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는 단지 단어의 구분일 뿐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장애인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휠체어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는 휠체어 장애인을 보셨나요? 시각 장애인 앵커 이창훈은 KBS라디오에서 ‘이창훈의 행복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 행복과 같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휠체어장애인의 멋진 춤을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휠체어를 탄 교수의 강의를 환호를 받으며 자폐인의 설계로 동물들의 안락한 축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므로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보실래요?

탈시설 장애인의 행복도 비장애인

길상사 2019년 여름 선 수련회

● 일정

차수	일정	대상	비용
1차	7월26일(금)~7월28일(일) / 2박3일	중·고등학생	무료
2차	7월29일(월)~7월30일(화) / 1박2일	초등1~3학년	무료
3차	7월30일(화)~7월31일(수) / 1박2일	초등4~6학년	무료
4차	8월8일(목)~8월10일(토) / 2박3일	성인	10만원

● 문의 : 02-3672-5945 / kilsangsa@hanmail.net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글 • 곽영미

“쫄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게요. 나무를 심으면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동네 사람들은 임종국 선생님이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숲이 주는 혜택과 고마움을 알기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누구나 산에 가서 마음대로 나무를 베다 불을 때고 가구나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 했어요. 그러니 산에 나무를 심는 임종국 선생님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우리나라의 산들은 일본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모두 망가졌어요. 푸르던 나무들이 모두 베어지거나 불타 없어지면서 붉은 흙만 드러내 벌거숭이 민둥산이 되어 버렸죠. 임종국 선생님이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산을 푸르게 하는 것만이 나라 사랑의 길입니다!”

임종국 선생님은 산을 푸르게 하는 일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숲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전쟁 후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나무를 사들여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어린나무만 심으면 쑥쑥 잘 자랄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나무를 심고 기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묘목을 사려면 돈이 들고, 그것을 심고 가꾸는 데도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해요. 또 어린나무들은 가뭄과 태풍으로 죽거나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도 한답니다.

어느 날, 극심한 가뭄이 들어 계곡이 마르자 임종국 선생님이 심은 나무들도 하나둘 죽어갔어요. 선생님은 급히 물을 구해서 물지게를 지고 산으로 물을 퍼 날랐습니다.

“이러다 나무들이 모두 말라 죽고 말겠어. 어떻게 해서든 나무들을 살려야 해.”

가족들은 임종국 선생님이 무척 안쓰러웠어요.

“그러다가 나무보다 당신이 먼저 쓰러져 죽겠어요.”

어깨가 피투성이가 된 임종국 선생님을 보다 못한 가족들은 함께 지게를 지고 물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관한 돈을 쓴다며 비웃었던 동네 주민들도 그 모습에 감동해 늦은 밤 횃불을 들고나와 도와주었지요. 우리나라 정부도 임종국 선생님의 노력에 감사하며 함께 숲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임종국 선생님과 같은 선구자(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가 없었다면 우리 강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숲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겠지요. 아름다운 나무와 귀여운 동물들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세계 산림국이라는 명예도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나무를 심는 작은 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난과 질병으로 무기력했던 케

나 사람들은 나무를 심으면서 자부심과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나무를 심는 일이 케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더 나은 숲을 물려줄 의무가 있어요. 나무를 심는 일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열대림의 숲이 사라지면 그곳에 사는 동물들도 사라지고, 숲이 사라지면

동물 다음으로 우리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이라는 임종국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우리의 지구별을 사랑하는 길이며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임종국 • ‘한국 조림왕의 시초’이다. 조림이란 사람의 힘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선생님은 평생 동안 전라남도 장성의 축령산 편백나무 숲과 전나무 숲을 가꾸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일깨워준 분이다.

기억에 남은 몽금포

글 • 강경애

언제나 여행하기까지 한가로움을 갖지 못한 나는 이때까지 여행한 일이 극히 적다. 몇 번 고향을 다녀온 것뿐 외에 전무하다고 해도 좋을 게다. 하나 구태여 쓰라니 고향의 접근지인 몽금포 이야기나 또 끌어내볼까 한다.

“에크! 또 나온다. 또 숨는다. 그 빛이 왜 저리도 푸를까. 심심산곡에서 별만 보고 자랐음인지 그 빛이 별인 양 속기 쉽고, 푸른 하늘을 그리워 애를 태울까. 그 머리에 다소곳 숙이고 수심愁心 빛이네.”

이 년 전 내가 귀향했을 때 몽금포를 찾아가는 길에 송림 틈에 검은스

레 피어 있는 도라지꽃을 보고 전속력을 다하여 닫는 자동차에서 즉흥으로 그린 글의 한 폭이거니와 지금도 내 머리에 그 도라지꽃이 파르스름히 남아 있다.

하늘도 보이지 않도록 첩첩이 얽힌 송림, 마치 구름인 양 피어서 뜨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파닥거려 날 때 묵은 솔잎은 봄비 소리를 내고 떨어지오. 그곳에 송진내 향불인 듯 거룩하오. 다복술 포기 뒤에 숨어 가오. 이 내다보는 도라지꽃, 내 치맛빛보다 더 푸른걸.

“내 비록 몸은 조그마하나 맘이야 저 바다에 뒤지랴!”

섬 몽금이(몽금 섬을 친근하게 가리킨 말.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갑돌이’나 ‘갑순이’처럼 명사 뒤에 붙어 어근을 골라 주는 기능을 가진 접미사) 바위 위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읊었던 글이다. 내 지금 붓을 들고 종이를 대하니 서해가 암암히 떠오른다. 세속에 물들었던 내 가슴이 탁 터져 버리고 하늘에 닿을 듯한 그 수평만이 이 내 가슴에 힘 있게 짙 건너지던 그 찰나가 지금 이런 듯 가슴에 출렁거린다.

수평선 위에 깨울히 걸려 있는 저 흰 돛폭, 예전 보름 지난 쪽달같이. 밤하늘에 별과 달이 빛난다면 저 바다엔 어선의 돛폭일지니, 망망한 바다에 저것이 있기에 내 집 안같이 아늑해 보이고 친하고 싶은 맘에 사람들의 가슴은 들먹이오.

손을 내밀어 오오오 부르고 싶어지는 까만 섬들, 꼭 강아지 같아. 아직

채 자라지 못한 강아지가 어미 개 궁둥이만 쪼르르 미쳐 다니는 듯한 저들. 바다 품에 꼭 안겨 있어 머리 숙여 가만히 들으니 섬 기슭 찰싹찰싹 스치는 파도 소리가 내 어머니의 입속 노래보다 더 부드러우이.

피를 이루고 재를 이루어서까지 바다를 따라 나온 사장沙場 아가씨, 그 몸의 소복素服이 아담하오. 거룩하오. 옛날 사마상여司馬相如(중국전한前漢시대의 문인, 한무제의 총애를 받으며 <자허부> 등의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탁문군에 반하여 사랑의 도피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짐)의 녹기금 소리에 탁문군卓文君의 그 뜻이 움직였다 하거니와 그대 또한 탁문군의 녀이 들어 이에 나왔노. 파도 소리에 그 맘이 진실로 움직임이었누.

오늘도 사장沙場을 치는 파도 소리 여전하오리. 그 적은 모래알이 하

나하나 파도에 적시우리로다. 그곳에 금실 같은 별이 웃고 모래가 화하여 된 듯한 게들이 그 빛을 잔등에 떠메고 바람같이 나부낄 테지. 바다 비린내 나오.

눈같이 희고도 부드러운 모래 위에 떨기떨기 엮여 있는 해당화, 그 붉은 꽃송이는 필경 바다를 향한 사장 아가씨의 일편단심이리로다. 바다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 그대. 같은 맘

언제나 한가지리니, 올해도 불이 붙는 듯 피어 있으리. 피를 뿌린 듯 피어 있사오리.

썩 내밀치는 파도 소리 내 붓 끝에 적시울 듯. 문득 나는 붓을 입에 물고 망연히 저 하늘을 바라보노니.

〈여성〉, 1937년 6월

* 출처 :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엮음

강경애(1907~1943) 소설가 • 황해도 송화 출생으로 장연에서 성장했다. 평양 송의여학교와 서울 동덕여학교에서 수학했다. 고난의 삶을 딛고 여성 운동과 소설 창작에 진력하다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회의식이 강렬하면서도 여성의 섬세한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을 발표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원고료 이백 원>(산남)<소금>등의 단편소설과 장편소설로 <어머니와 딸>(인간문제) 등이 있다.



(사)맑고 향기롭게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 2019. 8. 11(일) -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문예 창작 능력 향상을 위해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글과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2019. 7. 8(월) ~ 7. 31(수)
- 참가 대상 : 전국 초등학교
- 접수 인원 : 선착순 150명(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2. 행사 안내

- 일시 : 2019. 8. 11(일) 13:00~18:00
-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내
- 참가 부분 : 운문·산문
-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받침대, 돗자리, 물
- 시제 : 어린이들의 맑고 향기로운 정신과 관련된 시제를 당일
- 작품 제목 : 자유롭게 정함

3. 심사

- 심사방법 :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심사
- 심사기준 : 주제의 적절성, 창작성, 독창성
- 심사위원 : 도중환(시인, 전 문체부 장관), 박형준(시인,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홍용희(문학평론가, 경희사이버대 교수), 함명춘(시인, 출판인)

4. 발표 및 시상식

- 발표일 : 8월 21일(수)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시상식 : 2019. 8. 25(일) 13:30

5. 시상 내역

구 분	저학년		고학년		시상 내역
	운문	산문	운문	산문	
장원 (무소유상)	각 1명 (총 4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차상 (맑음상)	각 2명 (총 8명)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차하 (향기상)	각 2명 (총 8명)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장려상	각 5명 (총 20명)				상장 및 장학금 5만원

6. 참고사항

- 출품하신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한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 및 책자로 제작,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수상한 작품이 추후 저작권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당선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합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7. 문의

Tel. 02)741-4696 (상담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 운동

머그컵, 텀블러 사용 활성화등 1회용 컵 사용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사단법인 맏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환경보호 운동과 도심 속 생태사찰 가꾸기 운동으로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길상사내 우리 꽃 가꾸기, 한국 사찰에 맞는 화단 조성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길상사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을 맏고 향기롭게' 가꾸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맏고 향기롭게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 그리고 여러 방문객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길상사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환경이슈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먼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숲기행

맏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1. 8월, 9월 숲기행 일정 안내

일자	장 소	특 성
8/24	강원도 설악산 안양암	신홍사의 3암자 순례와 울산바위 가는 길의 뛰어난 자연경관
9/28	경북 운달산 김룡사	백두대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운달산과 김룡사의 신내 3암자 순례

※ 7월은 더위와 휴가철로 숲기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접수 안내

- (사)맏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8월 5일, 9월 2일)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8월 12일, 9월 9일)

4.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는 신도증 소지자로 한함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1인으로 한함

3. 참가비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 맏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2019년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사회활동 지원사업

'나누는 기쁨' 후기

*고아원 아동(4~6세)들의 꿈을 키워주는 체험 활동을 기획한 대학교 연합동아리

[4U] : 봉사 첫날은 서로를 알아가고 서먹한 사이를 깨고자 우선 아이들과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그룹을 나누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낮은 연령대 아이들은 공룡 뼈 발굴 후 뼈 조립하는 활동을 하였고, 높은 연령대의 아이들은 도구를 이용한 숫자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 같이 모여 그림퀴즈 활동하였습니다.

봉사자 대부분이 아이들과 활동은 처음이라 긴장하고 당황했지만,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들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지원금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의 폭이 넓어져 저희 동아리 부원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고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합동아리 [나누미]

: 평소에 저희 나누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정된 공부방에 가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앞날에 대해

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인생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더 친해지고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자 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왕피구, 계주, 다리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는 등 많은 게임을 함께함으로써 서로 간의 협동을 더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피자과 콜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의 지원으로 인해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힘을 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홀몸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희

대학교 [미라클] : 집 고치기 봉사는 벽지도 배와 장판교체를 주로 하고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집수리를 도와드립니다. 벽지와 장판은 재료값이 만만치 않아서 봉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맑고 향기롭게」의 지원으로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부엌 옆과 방 내부 모서리에 핀 곰팡이로 인해 어르신께서 임시로 달력을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도배의 전 과정을 봉사자들이 직접 진행했고, 새 벽지로 도배된 깔끔해진 집을 본 어르신께서는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봉사를 하며 힘든 어

르신의 사정을 들은 저희는 집을 잘 고쳐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봉사에서도 세상을 좀 더 맑고 향기롭게 만들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9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중앙모임 봉사자를 비롯하여 KTX 나눔이회, SJ파워사랑봉사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쉽고 맛있게 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

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법정 스님 영상법문) : 28일(일)/오전 11시/길상사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0월 둘째 목요일(11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3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20, 27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7월 숲기행은 휴가철 및 더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생태사찰가꾸기모임 : 매주 월, 목요일/

길상사 경내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 잠언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활동과 홍보(추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자 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장치,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태극권, 형악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화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화'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사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같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정기후원 /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	---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극락전
- ※ 금강경 축원은 따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7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입재

- 일시 : 7월 6일(토) 오후 6시 ~ 8시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기피력으로 원하는 비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지장 천일기도 8회차 입재

- 일시 : 7월 10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7월 13일(토) 오후 8시
~7월 14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7월 1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7월 20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7월 26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2019년 여름 선 수련회

가

가

가

● 일정

차수	일정	대상	비용
1차	7월26일(금)~7월28일(일) / 2박3일	중·고등학생	무료
2차	7월29일(월)~7월30일(화) / 1박2일	초등1~3학년	무료
3차	7월30일(화)~7월31일(수) / 1박2일	초등4~6학년	무료
4차	8월8일(목)~8월10일(토) / 2박3일	성인	10만원

● 접수 : 7월 1일부터 ~ 정원 마감까지

길상사 홈페이지(수행터-템플스테이-여름 선수련회)

● 성인 수련회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1-136827/길상사

● 문의 : 02-3672-5945 / kilsangsa@hanmail.net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초하루 기도	7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3년 기도 입재	7월 6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지장 천일기도 8회차 입재	7월 1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7월 13일	오후 8시	극락전
보름기도	7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7월 2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7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제 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2019. 8. 11(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문예 창작 능력 향상을 위해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글과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상 내역

구 분	저학년		고학년		시상 내역
	운문	산문	운문	산문	
장원(무소유상)	각 1명 (총 4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차상(말음상)	각 2명 (총 8명)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차하(향기상)	각 2명 (총 8명)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장려상	각 5명 (총 20명)				상장 및 장학금 5만원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2019. 7. 8(월) ~ 7. 31(수)
- 참가 대상 : 전국 초등학교생
- 접수 인원 : 선착순 150명(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

